

축사



최근까지 형사사법의 운영은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해 온 반면, 범죄피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범죄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며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따뜻한 법질서 확립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2006. 12.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을 18년 만에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과 함께 범죄자와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형사조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피해자를 운 나쁜 범죄의 희생양이라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고통을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피해자들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민간영역에서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걸쳐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전국적 네트워크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하여 범죄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위해 피해상담, 범죄현장 정리,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소식지인 '보호와 지원'을 창간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식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깊어지고, 피해자들에게도 소중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중한 희망을 키워주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역시 범죄피해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 4.
법무부장관 김경한

범죄피해자,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18년만의 범죄피해구조금 상향 및 지급대상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2009년 4월 14일 공포·시행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1,000만원)와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한법 제3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금 -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국가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지력의 사유로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 참조)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

물가상승,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구조금액을 상향(최대 3,000만원)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6급 이상)하여,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09. 4. 14. 시행되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하여야 하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족구조금(1,000만원)과 장해구조금(최대 600만원)의 지급한도를 모두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차등화기준을 마련했다.

-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장해 1~3급)인 경우만 장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중장애’에 해당하였으나, 이를 4~6급까지 확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70%(6급) 이상이면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국센터 형사조정위원 교육

법무부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년 4월 27일(월)~30일(목) 4일에 걸쳐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전국 360여 명의 형사조정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형사조정이론’, ‘형사조정 실무’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형사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범죄피해의 회복에 동참하고, 과도한 형사 분쟁해결 비용을 최

소화 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은 형사조정 이론(송길룡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 형사조정 실무(박광민-법무법인 윤춘 변호사, 김영철-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조대환-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조정의 기술(허경호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범죄피해자의 실제(이용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형사법에서의 갈등조정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형사조정 실태와 조정위원의 역할 (이동원-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내용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정과 화해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법무부는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2008년 50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작년 이어 세 번째 교육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전개

1과 1결손가정과 결연 맺어 연중 멘토역할

25일 제46회 ‘법의 날’ 맞아 결연가정 초청 행사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박은혜씨를 사랑의손잡기 운동 홍보대사로 임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지난 택된 법무부 생활공감 정책 중 해 10월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 채 하나로, 1課 1組(家庭)과 결연하 여 각 부서별로 결연가정에 적합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다양한

형태의 멘토역할을 연중 전개해 나가는 맞춤형 사랑나눔 실천운동이다

법무부 본부는 2009년 1월부터 장·차관실을 비롯한 본부 49개 과가 각 1개의 결손가정과 결연을 맺고 청소년 85명을 포함한 160명의 불우한 이웃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 수용자 가정 14, 다문화 가정 13, 범죄피해자 가정 10, 보호관찰대상자 및 소년원생 가정 2, 기타 일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 등 11개)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생필품 및 생활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결손가정의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모’와 같은 역할수행에 중점을 두고, 진로·인생 상담, 생일 축하편지·생일선물, 연극·영화·스포츠 관람과 같은 문화체험과 성장과정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결손가정 아이들

이 밝고 건강한 인생관을 확립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약 4800만원은 전액 사랑의 돼지저금통 등을 통한 직원모금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과천청사 앞 잔디마당, 서울대공원에서 결연가정 초청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장·차관, 실국본부장 등 (11명), 결연가정의 자녀 및 보호자 (60명 내외), 개인지원 불우소의 이웃 자녀 등 (40명), 법사팀 서포터즈(20명) 및 블러그 기자단(20명), 실국본부 결연가정 멘토직원 (30명) 등 1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같이했다.

축사



따뜻한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이끌어 오시는 이용우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여러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고 인사를 나누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 소식지인 '보호와 지원' 신문을 창간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 검찰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서 시작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이 이제는 전국 57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그 결실을 맺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구조금,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프로그램,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등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이 보다 실질화 되려면 검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범죄피해자지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하고도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갑자기 당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불행 겪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이들을

돌보는 전국 범죄피해자센터의 활동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통로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때에 창간하게 된 '보호와 지원' 신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소식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등불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단체 회원 여러분!

국민들에게는 아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 역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문호 괴테는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 곳에서 움튼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그들이 진정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검찰총장 임채진

대검찰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방재복 등 범죄현장 정리 장비 전달

강력범죄 현장정리활동 본격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민우태 검사장)는 2009년 1월 5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에 범죄현장 정리 장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범죄현장 정리 장비는 방재복·안전장화·안전장갑·방진마스크 각 400세트와 조끼 1000개로, 검찰은 예산 3183만여 원을 들여 장비를 제작했다.

검찰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전달식에서 그간 유족들이 부담하고 있던 강력사건 현장의 혈흔 제거와 가재도구 청소 등 강력범죄현장 정리 활동을 유족 요청시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 현장은 피해자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지만 체계적 정리시스템이 없어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외부용역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은 2005년부터 단편적으로 강력범죄현장에서 혈흔을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닦는 현장정리를 시작했으나 미망한 장비구비 없이 청소를 하다 보니 옷이 오염되는 등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현장 정리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하여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범죄현장 정리 활동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 방제작업과 같이 범죄현장 정리가 쉽게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영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가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회 범죄피해자연구회 세미나

증인신변보호 강화방안 등 발표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요약

제2회 범죄피해자연구회 세미나가 2008년 12월 1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박광민(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조준석(이대 교수), 한승철(부천 차장), 이용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1. 세미나 요지

- 범죄피해자·증인신변보호 강화방안 발표(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박사)
- 새로운 신분과 주거 제공, 신원관리카드 열람 제한 강화, 보좌인 지정시 피해자의사 반영, 조직이탈자 재사회화프로그램 개발 등 조치 필요
- 그 전제로 피해자기금 등 재원 확보 요망
- 각국의 증인보호프로그램 소개(수원지검 최은정 검사)
- 미국 증인보호프로그램은 중대범죄의

경우 공소유지에 필수적이고 회복유려가 있는 증인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시행중

- 증인 위험성 평가, 채무 등 기존 의무 이행, 미약점사 등 조건 부과, 증인 사전 제공, 검사의 검토, 사전면담, 정신감정,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서 작성, 증인보호조치, 증인 순으로 진행
- 네덜란드는 익명성 보장, 찰레는 음성변조와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을 특징으로 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 운영

- 자유토론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외에 일반 증인을 위한 증인보호법 신설 필요(피해자학회장 박광민)
-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요약(이대 교수 조준석)
- 증인 확보 위한 Undercover 수사 필요(구조지원과장 김학석)

2. 분석 및 대책

- 세미나 결과 분석
- 세미나에 40여명이 참석, 피해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 신변보호는 일반 범죄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노출 방지와 증인이 필수적이고 회복유려 있는 중대범죄의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자는 의견 대두
- 검찰대책

- 세미나 결과 및 연구 용역에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 방안 마련 예정
- 증인보호프로그램은 공소유지에 필수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인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학계가 범죄피해자연구회 참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차기 세미나에는 한국피해자학회 소속 교수들의 추가 초청 필요

대검 김홍일 마약조직범죄부장 연합회 회장단 및 수도권 이사장과 간담회

대검 김홍일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단 및 수도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부장은 간담회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회장단 및 이사장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경기서남부 연쇄살인사건(강호순 사건)과 같이 흉악한 문지마 살

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10월29일에 개최하는 제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센터 홍보, 피해자 발굴, 전문상담사 교육, 형사조정교육 등 당면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제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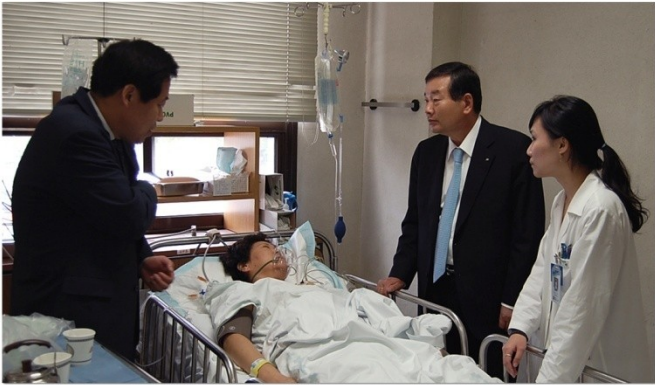


- 일시 :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10:10
- 장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 주관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주최 : 법무부

10월 26일~ 30일 까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입니다.
각 센터 및 관련단체, 지자체에서는 범국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중앙센터

논현동 고시원 살인·방화 사건 피해자 지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2008년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발생한 살인·방화사건(피의자 정00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과 담당관과 함께 범죄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강남성모병원 등을 방문하여 유가족 및 중상해 피해자들을 위로한 뒤, 병원치료비와 장례비 등 지원에 대하여 병원관계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지원에 들어갔다.

또한, 이용우 이사장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전국56개 센터의 지원금 지원으

로 유가족 및 중상해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치료비등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지원금을 지원해 주신 각 센터의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센터는 2차 수술이 필요해 입원한 중상해 피해자 김00의 치료비등 추가 의료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앙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이용우 이사장이 고시원 피해자를 찾아 위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중앙센터는 2009년 2월 27일(금) 오후 3시에 살인미수 피해자와 상해 피해자들을 위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용우 이사장은 또한, 논현동 고시원

살인·방화 유가족 및 피해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위로했다.



▲이용우 이사장이 피해자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9년 설날(구정) 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는 2009년 설날(구정)을 맞이하여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외된 유가족 및 피해자등 71가구에 쌀 및 생필품을 구입하여 각 가정에 배달지원했다. 센터

측에서는 유가족들과 만난자리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www.kcvc.net

한국범죄중앙센터와 아름다운재단 협약

강력범죄피해자 대상으로 1년간 지원

생활 안정 도모위해 연간 9백50만원 예산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와 (재)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2007년 4월 23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강력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편견어린 시선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자

미연이의 수호천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재단과 중앙센터에서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은 '미연이의 수호천사'라는 사업명으로 강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9백50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3월까지 생활 안정비, 장학금,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며 1인(가주) 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 절차는 KCVC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이 이뤄진다.

(사)서울동부센터 정기총회 및 교육

가수 김수희 코미디언 김학래씨 홍보대사로 우수위원 표창과 다국적 통역 봉사자도 위촉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관)에서는 2009년 3월 13일 오후 2시 송파 여성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정기총회 및 교육을 가졌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김종인 검사장을 비롯 형사부장검사 담당검사, 센터 이종관

이사장을 비롯 위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수위원 표창(검사장 10명, 이사장 6명)과 아울러 가수 김수희씨와 코미디언 김학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어 신규위원 34명과 다국적 통역 봉사자를 위촉했다.(베트남, 몽골, 중국)



▲김종인 검사장이 김학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종관 이사장이 김수희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cvc.or.kr

60대 노모 검찰총장에 감사편지 써

조종태 서울동부지검 검사 중재로 처벌 면해

"100kg이 넘는 정신지체장애인 아들을 둔 제가 죄인입니다...평생 마음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신모(65·여)씨는 얼마 전 임채진 검찰총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신 씨에게 정신지체 1급인 아들 김성태(28·가명) 씨가 있다. 정신연령이 4세 수준인 성태 씨는 국립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다 앞을 지나던 이모(66·여) 씨의 하얗게 센 머리를 보고 흥분해 이 씨를 밀어버렸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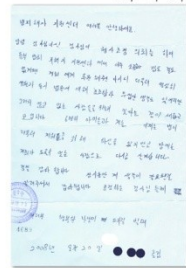
월 60만 원으로 살아가던 신 씨에게 그 돈은 너무나 큰 액수였다. 일용직 노동을 하는 남편은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어 3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행히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 씨측이 합의금을 500만 원으로 줄여주었다. 그러나 평소 몸이 약한 신 씨가 병으로 쓰러졌고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수술비로 써버렸다.

반 년 넘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자 이 씨는 신 씨 측을 검찰에 고소했고 그 상황에서 신 씨를 구해준 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조종태 검사.

조 검사는 신 씨 측 사정을 전해 듣고 지검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 지원센터는 신 씨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신 씨가 여유 있을 때 갚을 수 있도록 중재까지 했다.

신 씨는 "폭족할 때 쌀 한 말은 하찮은 것이지만 보릿고개에 살 한 톨은 온 가족 목숨도 구할 수 있다"며 "고미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라며 감사의 눈물을 보였다.



(사)서울남부센터 피해 가정과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결연

김승제 이사장, 결연 가정에 연계하여 지속적 지원 약속



▲황희철 검사장과 김승제 이사장이 결연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승제 이사장과 서울남부지검 방검찰청 황희철 검사장은 2009년 3월 27일 오후 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은 가정을 차례로 방문해 서울남부지검검찰청에서 '사랑의 손잡기 운동' 차원에서 결연을 맺고 지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승제 이사장은 이날 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한국의 경우 가해자의 인권은 갈수록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이 제2의 피해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이 절실

하다"고 강조했다. 센터 민정기 사무처장은 "범죄 피해 가정들은 남모르는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작은 도움이나마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방문한 가정들도 모두 정신적 고통과 함께 생계를 꾸려 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해 2월 독거노인인 김모(67·가양동)씨는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의자에게 두들겨 맞아 왼쪽 눈을 실명, 이후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 지원금 독지가 기부금 기탁



▲피해자지원금 독지가 김승제 이사장에게 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다.

2008년 4월 18일 오후 중국동포 남광철(42)씨는 솔지리에서 벌어진 싸움을 말리다 화를 못 이긴

동료 조선족의 칼에 허벅지를 찔렸다. 대퇴부동맥이 끊기면서 과다출혈로 이를 뒤 숨을 거뒀다. 중국에서 두 동생이 생업을 놓고 한국에 왔지만 국적이 중국이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탓에 사흘간의 치료비만 7000만원에 장례비까지 합하면 1000만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무일푼 일용직 근로자여서 이를 배상받을 길도 없었다는 2008년 9월 12일 동아일보 사회면 A10면에 보도된 내용을 본 독지가 전 주거주 이○○씨가 기부금을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탁하여 2008년 9월 19일 11:00 서울남부지검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실에서 김승제 이사장이 故남○○씨의 유족 남○○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했다.



▲결연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svc.or.kr